

**다목적실용위성 추진위 개최  
임무사양 확정**

과학기술처가 지난 2월 16일(金) 제16차 다목적실용위성개발사업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과거처, 재정경제원, 통상산업부 등 정부기관과 연구소, 협회에서 총 9명이 참석한 동 추진위원회에서는 다목적실용위성 공동운영지침 개정 등 4개안건을 의결하였으며 다목적 실용위성사업 1단계 수행내역 등 2건이 보고되었다. 의결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결안건〉

다목적실용위성 공동운영지침 개정  
다목적실용위성 심의위원회 신설  
및 위원 변경

(관제수신 심의위원회 신설)

다목적실용위성발사체 선정평가방법  
(기술이전이 배제된상태에서의 금액을 명기할 것을 추가)

다목적실용위성 본체추가 옵션계약

〈보고안건〉

다목적실용위성사업 1단계 수행내역  
위성발사에 따른 보험분석

**미 NASA, 2018년에 화성  
유인탐사계획**

미국립항공우주국(NASA)은 오는 2018년 우주비행사를 화성에 보낸다는 야심찬 계획을 수립했다고 NASA 관리들이 밝혔다.

이번에 NASA가 입안한 계획은 빌 클린턴 대통령의 승인을 얻을

경우 지난 89년 조지 부시 전대통령 시절 만들어졌다 동결상태에 있는 화성 유인탐사 계획을 대체하게 된다.

종전 화성 유인탐사 계획은 5천억달러를 투자해 2019년에 우주비행사를 화성에 보낸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나 막대한 소요예산에 대한 강한 비난여론에 밀려 계획이 동결됐었다.

관리들은 새로 입안된 계획은 오는 12월부터 2005년까지 유인탐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키 위해 적어도 10차례의 무인탐사선을 쏘아올리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97년과 98년에는 화성궤도에 진입할 위성과 유인탐사 가능성을 파악키 위한 착륙선을 각각 발사토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우주개발  
10개년 계획 발표**

일본은 자체 개발한 H-2 로켓의 성능혁신을 포함한 10개년 우주계획 청사진을 발표했다.

과학기술청 산하 자문기구인 우주활동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청사진에서 지난 94년2월 첫 발사에 성공한 H-2 우주선 발사용 로켓의 성능을 향상, 개선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이같은 노력을 기울일 경우 지금의 절반가격에 2배의 중량을 적재할 수 있는 개량형 H-2 로켓 개발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우주활동위원회는 또 정부가 지구탐사와 임무시범을 위한 새로운 2개 시리즈의 위성을 개발하는 한편 수평으로 이·착륙할 수 있는 우주 비행기와 달 탐사를 위한 궤도전환우주선의 개발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이 위원회는 지난 2년간 이루어진 3차례의 H-2 로켓 발사 성공을 들어 "일본이 우주기술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다"면서 "일본은 이제 21세기를 맞아 우주활동을 위한 새로운 접근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팬암사트, 내년말  
직접방송위성 PAS-7 발사**

팬암사트사는 오는 97년말에 동경 685도의 인도양 위에 PAS-7호 위성을 쏘아 올릴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팬암사트는 PAS-7 위성이 현재 인도양 상공 3만5천6백80km 지점에 위치한 PAS-4호 위성과 합류, 아프리카 지역의 위성 서비스를 확충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PAS-7 위성은 유럽우주국의 상업적 지구인 프랑스의 아리안스페이스사가 프랑수아 기아나에 있는 기아나 우주센터에서 발사될 예정이다. 팬암사트는 곧 이 위성의 제작사를 발표할 예정이다.

PAS-7위성은 PAS-4위성과 함께 남아공의 5백만 시청 가구에 훨씬 많은 채널의 직접 위성 방송 서비

스를 제공할 것으로 알려졌다.

## 일본, 군사위성 수준 고해상도 위성 구입 검토

일본 방위청은 군사정찰위성에 필적하는 해상능력을 갖춘 민간지구관측위성의 탑재카메라 조작용 리모콘장치를 구입하기 위한 검토에 착수했다고 산케이신문이 복수의 방위청 소식통을 인용 보도했다.

이 신문은 방위청이 구입 검토에 착수한 고해상도 위성은 록히드등 미국의 수개 회사가 개발, 제조중인 관측위성으로 전투기 기종, 탄도미사일 발사위치까지 식별이 가능할 정도의 해상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전했다.

냉전시대의 미소 군사정찰위성에 필적하는 해상능력을 갖춘 이 위성은 빠르면 97년이나 98년 발사될 예정이다.

일본은 그동안 군사정보의 대미 의존을 탈피하기 위해 독자 정보위성의 확보를 꾀해 왔다.

## 알파계획에 5년간 14억 EAU 각료회의서 제출승인

유럽우주기구(EAU)는 지난 연말 각료회의를 개최한바 있는데 최근에 동 회의에서 결의한 내용이 발표되었다.

이 발표에 의하면 미국과 러시아가 추진중인 우주정거장을 설치하는 알파계획에 유럽 15개국이 참여

하기 위한 재정부담을 토의했는데 96년부터 2000년까지 5년간에 도합 14억 EAU를 지출하기로 정하고 각국의 분담액도 결정했다고 한다.

〈각국의 부담액〉

독일 6억 EAU

이탈리아 2억5천EAU

(5천은 용자)

프랑스 4억EAU

기타각국이 1억5천 EAU

사업내용은 프랑스가 신형 아리안 5호 로켓을 개발하여 발사장치를 책임지고 또한 승무원 구출기 개발도 담당기로 했으며 독일은 우주정거장 관련의 모듈을 제조하는 책임을 맡았다고 한다.

## 캐나다, 레이저위성 발사

캐나다는 세계최초로 실용 레이저 위성을 발사하여 지구궤도에 진입시키는데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레이더 세트 1호라고 명명된 동 위성은 몬타리오주에 있는 슈퍼 에어로노틱스사가 6억 2천만 캐나다 달러를 들여 발사한 지구표면 모니터링 위성으로 캐나다의 주요 항로상의 상태를 감시하는데 쓰인다고 한다. 지구 주위 선회고도는 792km이며 해상력 8m까지의 지구표면 영상을 상업용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하는데 위성발사를 담당한 미국은 수집자료의 15%를 발사 대가로 받기로 했다고 한다.

## 극비 군사위성 발사 미공군, 타이탄4 로켓으로

미국공군은 최근 벤딘버그 공군기지에서 타이탄 4호 로켓을 이용, 군사용의 극비 위성을 발사했다고 전하는데 동 위성의 크기, 성능등은 일체 알려지지 않고 있다.

다만, 동기지에서 타이탄 로켓을 이용해 위성이 발사된 것은 2년만에 처음 있는 일어서 외부에 알려지게 되었다고 한다.

## 미 NASA, 화성지면탐사기기 개발

미 우주항공국(NASA)은 화성의 지면탐사를 위한 Pathfinder를 개발하여 현재 최종조립단계에 있다고 미 AW&ST지가 보도했다.

NASA의 탐사계획에 의하면 동 기기는 총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화성주위를 탐사하기위한 순항단계장치, 혹성진입시의 기기보호장치, 그리고 착륙을 위한 장치로 나뉘어진다.

동 기기는 93년 개발을 시작하여 3년의 연구 끝에 제작되었으며 1억 7천만불의 개발비가 소요되었다. 아울러 발사는 맥도넬더글라스(MD) 델타-2호에 의해서 올 12월에 발사될 예정이며 내년 중반에 화성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고 동 지는 보도했다.

총 880kg의 연료를 탑재하고 있으며 폭은 2.65m, 높이는 1.5m이다.